

生成用語와 製定用語를 통해 본 現代國語의 몇 가지 現象(1)*

송기중**

I. 서론

1. '用語'의 개념

일반 국어사전에서 '用語'의 뜻을 찾아보면, 구성 한자의 直譯에 불과한, "쓰는 말" 혹은 "사용하는 말"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설명이다. 국립국어연구원간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 "일정한 전문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 '쓰는 말'로 순화." 역시 자상한 설명은 아니다.

비록 확실한 의미가 정립되어 온 것은 아니지만, 국어에서 '용어'는 "특별한 의미의 말" 혹은 "표현어의 外延的 의미가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뜻으로 대개 사용하여 온 듯하다. 특히 어떤 기술분야에서 통용되는 專門技術用語, 혹은 어떤 학문분야에서 사용되는 學術用語를 '용어'로 보통

* 본고는 2002년 7월 6일 일본 京都大學 워크샵에서 필자가 발표한 "Problems of English and Pseudo-English Terms in Modern Korean"(現代韓國語에서 사용되는 英語와 擬似英語 用語의 問題)와 12월 12일 한국학술단체연합회 주최 학술회의에서 "用語의 生成과 用語의 製定"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원고를 종합하고 보충하여 집필한 것이다. 두 학술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는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을 가급적 피하였고, 국어학/언어학들에게는 상식적인 사항이지만 설명을 붙이기도 하였다.

** 본과 교수

생각한다.¹⁾ 또, 새로 등장한 사물이나 사상을 표현하는新語도 보통 ‘용어’로 부른다. ‘탈북자’·‘악의 축’·‘XXX게이트’·‘핵사찰’ 등은 최근의 時事用語이고, ‘고수부치/둔치’·‘(한강)시민공원’·‘만남의 광장’·‘민주화’·‘정보화’·‘도우미’ 등은 지난 20여년 사이에 처음 등장하여 국어에 정착한 一般用語들이다.

2. 用語의 등장과 소멸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용어는 생성하고 소멸한다. 새로운 現象, 새로운 物件, 새로운 思想이 등장하면 그것을 표현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고, 불필요하게 된 용어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키보드’ 등과 같은 컴퓨터 관계 용어들은 전부가 지난 30년 사이에 국어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그와 반면에, 1960년대까지도 사용하던 전통적인 기술용어와 생활용어 중에는 완전히 잊혀졌거나 일부 노년층만 희미하게 기억하는 용어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들 중에는 ‘장작불 때던 시절’ 서울 사람의 일상 생활용어였던 ‘아궁이’·‘관솔’·‘불쏘시개’·‘불지피다’·‘나무뽕개다’·‘나무패다’·‘군불(때다)’·‘장작 한 핏’·‘토탄’·‘조개탄’ 등등과, 같은 시절 시골 사람의 일상 용어였던 ‘나무하다’·‘짚불’·‘솔가투’·‘쇠죽(쑤다)’·‘여물’·‘작두’ 등을 아직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50세 이하의 세대에서 이 단어들을 모두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 것이다.

새 용어는 반드시 새로 소개되는 사물이나 추상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상을 표현하는 기존의 용어가 존재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여 기존의 용어를 밀어내는 경우가 흔하다. 일제 통치시대에 국어에 차용되었던 일본어 생활용어들이 광복 이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대부분 다른 말로 대체되었고 (예는 아래 “4. 醇化”에), 근래 ‘열쇠’가 영어 차용어 ‘키’로, ‘開場·開業’이 ‘오픈’으로 빈번히 표현되고, 또 ‘층(層)’이 ‘F’, ‘xxx 대(對) xxx’에서 ‘대’가 ‘vs’로 표기됨을 흔히

1)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영어 용어가 ‘term’ 이고, 어떤 분야 용어의 집합이 ‘terminology’이다.

볼 수 있다.

3. 用語의 生成과 用語의 製定

어느 언어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는 과정은 2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한 가지는 누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새 용어가 점차 널리 통용되어 어휘의 一員으로 정착되는 경우이고, 다른 한 가지는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정하거나 어느 개인이 만들어 사용해 온 것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경우이다. 앞의 과정을 '用語의 生成', 뒤의 과정을 '用語의 製定'이라 부를 수 있다. '생성'이 '자연적'으로 이루어 지는데 비하여 '제정'은 '인위적·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전래의 생활용어들과 함께, '라디오'·'텔레비전'·'컴퓨터' 등과 같은 영어 차용어들은 대부분 '생성'의 과정을 거쳐 국어에 정착되었고, '명사'·'동사'·'이름씨'·'움직씨' 등과 같은 문법용어들은 '제정'의 과정을 거쳐 정착되었다.

4. 醇化 -- 代置語의 製定

1 백여년전 개화기에 주시경 선생을 위시한 선각자들에 의하여 시작된 '국어순화'는 광복 이후 문교부·국립국어연구원 등 국가 기관과 한글학회·기자협회 등 사설 단체에 의하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순화'의 의미는 "불순한 것을 제거하여 순수하게 만드는 것"으로 '精製'의 뜻과 유사하다.²⁾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어순화'의 실천 내용은 "국어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한자어나 외래어를 다른 말로 바꾸는 일"을 의미해 왔다. 다시 말하자면, "代置語를 製定하는 일"을 국어순화라고 불려왔다.

2) '국어순화'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민현식 <국어 순화 정책의 회고와 전망>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2002년) 205-251면 참고. 이 논문에 인용된 선배 학자의 논문에서 '醇化'를 '純化'와 동의어로 이해하고, 영어로 'purification'으로 해석하였는데, 두 단어 사이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영어로는 'refinement'가 적절하다.

우리는 광복 이후 '국어순화운동'으로, 북한에서는 '말다듬기운동'으로 일본어 차용어들을 대부분 다른 말로 완전히 '순화'하는데 성공하였다. 현재 60세 이상 세대들이 어렸을 때 일상 듣고 사용하던 일본어 차용어 '벤또'·'스시'·'와리바시'·'자부동'·'간스메'·'쓰메끼리' 등이 '도시락'·'초밥'·'소독저 나무젓가락/회용젓가락'·'방석'·'통줄임'·'손톱깎이' 등으로 완전히 대체되었고, 일상 용어 중에는 '우동'·'뽕뿌라' 등 소수만 잔존하고 있다. 과거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李朝'·'解放'을, 국사학자들의 제안에 따라, 1970년대부터 '조선(왕)조'·'광복'으로 대체하여 왔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상당히 성공적인 대처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한자어 용어를 무리하게 고유어로 바꾸거나, 이미 정착된 영어 차용어를 고유어로 '대치'하려는 노력은 대부분 실패하였다.

5. 標準化 -- 用語의 統一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는 複數의 용어, 즉 同義語들은 사용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단일어로 統一되기도 하고, 製定의 절차를 거쳐 單一化되기도 한다. 학술용어 '口碑文學'은 1960년대 초반부터 故 張德順 교수가 '口傳文學'·'民譚·說話' 등을 대신하여 사용한 것이 정착된 것이고, '借字表記'는 1980년대 초반부터 '이두'·'향찰'·'구결' 등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안병희 교수와 남풍현 교수의 논저에 사용된 것이 (용어 자체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학계에 보급되어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이다. '태권도'는 1950년대까지 '唐手'·'空手'·'가라데' 등 몇 가지 명칭이 존재하였는데 유관 단체의 협의·제정 절차를 거쳐 성공적으로 통일한 용어이다.

1930년대에 朝鮮語學會에서 그리고 1988년에 국어연구소에서 査定한 '표준어'는 현실 국어에 존재하는 同義異音語 중에서 어느 하나를 지정한 것이다. 1988년의 <표준어 규정>에서 예를 들면, (앞의 것이 표준어) '똥제':'두제', '수강아지':'숫강아지', '삼춘':'삼춘', '윗눈썹':'웃눈썹', '위쪽':'웃쪽', '웃돈':'윗돈' 등.

6. 生成用語와 製定用語의 관찰

20세기 현대 국어 연구에서 ‘용어’ 혹은 ‘어휘 일반’은 소수 국어학자들의 관심사였다. 음운론과 문법론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용어의 문제’는 흥미있는 주제로 인식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현대국어에 생성 혹은 제정, 혹은 소멸되는 용어, 또 제정된 용어의 수용 혹은 불수용 상황을 관찰하면, 용어는 전통적 국어학/언어학의 관심사와 새로운 주제의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는 사실을 감지할 있다.

새 용어의 형성 방법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 형태소 혹은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 둘째는 기존형태소 혹은 단어를 합성하여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 셋째는 외국어를 차용하는 방법 등등이다. (아래 “II-3”에 자세히 열거하였다.)

음성·음운론적 관찰. 기존의 고유어 형태소 혹은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예를 들면, ‘골뱅이’--인터넷 주소에 쓰는 부호 ‘@’의 명칭), 기존의 형식을 합성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예. ‘노래방’) 만들어진 용어들에는 음성·음운론적으로 특이한 사항이 거의 없다. 그러나, 외국어의 차용으로 이루어지는 신용어들은 음성·음운론적 측면에서 ‘설명’해야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또, 외국어음에 대응하는 국어음을 관찰함으로써, 국어음의 특성을 보다 정밀히 관찰할 수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본다. 국어에 정착한 외래어 신용어들은 대개 국어의 음운체계에 순용하여 변화한 형식들이라는 사실은, 누구의 이론이라고 들춰낼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도 넉넉히 추측할 수 있다. 영어의 [f]는 上齒-下脣 마찰음으로 국어에는 부재하는 음이기 때문에, 중부방언 국어 화자들은 후두 마찰음에 원순모음을 더한 [후]로, 남부방언 화자들은 兩脣-파열-유기음 [ㅍ]로 이해하여, 영어의 fine·fighting·font를 중부방언 화자들은 [화인]·[화이팅]·[훤트]와 같이 이해하고, 남부방언 화자들은 [파인]·[파이팅]·[폰트]와 같이 이해한다. 영어의 [f]와 국어의 [후]와 [ㅍ]는 조음음성학적/음향음성학적으로 분명히 다르다. [f]와 [후]/[ㅍ]의 대응은 [f]의 변별자질을 국어 화자들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어 음운체계에서 변별되는 음소 중 유사한

것과 일치시킨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l와 [후/hu] 혹은 [ㅍ/ph]를 일치시킨 '이유'를 지금까지 흔히 언급된 음성의 조음음성학적 변별자질류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또, 동일한 영어의 [l]를 국어의 중부방언 화자와 남부방언 화자가 다르게 이해하는 사실도 '설명'이 필요하다.

외래어는 경우에 따라 국어의 음운체계에 변화를 준다. 본래 국어의 語頭子音 체계에는 流音이 존재하지 않아서, radio·lamp 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우리 조상들은 국어의 음운체계에 따라 [나디오]나지오·[남포]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대략 지난 50년 사이에 [라디오]·[램프]로 재정착하였다. 외래어의 영향으로 중부지방 국어의 어두자음 체계에 [ㄹ]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예이다. 또, '컴퓨터'·'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국어에 생소한 음절연쇄(syllable sequences)들이 외래어에 의하여 등장하였다.

형태론적 관찰. 형태론적 차원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우선, '외국어의 차용에 의한 용어의 형성'은 일반적인 단어 형성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차용'은 국어의 어휘체계에 기존 형태소들과 전혀 상관 없는 새로운 형태소가 추가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외국어음은 국어의 음운체계에 순응하여 변화·감지되기 때문에, 차용어 형태소들의 음성조직은 원어의 음성조직과 달라진다. 차용어 형태소들의 문법적 기능 역시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영어의 'typewriter'은 'type-write-er' 3개 형태소로 구성되었는데, 국어에서 '타이프라이터'는 분석할 수 없는 단일 형태소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회사 명칭에 유행적으로 사용하는 '테크'라는 용어는 어원이 영어의 'technical'(기술적), 'technician'(기술자), 'technology'(과학기술) 등의 어두음절 약어'tech.'이다. 현실 국어에서 '테크'는 '새로운 기술 개발 회사' 혹은 '새로운 기술에 의하여 제조하는 회사'라는 의미로 통용되지만, 아직은 자립형태소의 기능은 가지지 못했고, 의존명사로 固有商號에 첨가되어 분류어와 같은 기능을 가진 단위로 이해할 수 있다.

'생성' 혹은 '제정'되는 새 용어 중에는 사용자에게 즉시 수용되어 널리 보급되고 국어 어휘로 확고한 위치를 누리는 용어들이 있는 반면에,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폐기되는 용어들도 적지 않다. 어떤 용어들이 수용성이 높고, 어떤 용어들이 낮은지는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나란

히꼴'(=평행사변형)·'넴보라살'(=자외선)과 같이 형태소의 문법적 기능을 무시한 신조어가 가용성이 낮거나, 용어를 만든 사람이 의도한 구성 성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혹은 여느 외래어와 같이, 전혀 무의미한 언어단위로 구성된 새 용어로 이해되는 사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왔다. 즉, '나란히 꼴'과 '넴보라살'을 '제정'한 사람들은 '변이 나란한 도형'·'보라 빛 너머(밖에) 있는 선(햇살)'의 의미를 용어에 반영시켜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사용자들은 그 용어에서 제정자들이 기대한 의미를 전혀 감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수년 전에 제정된 '갓길'이라는 용어도 제정자들은 '갓'과 '길' 2개 고유어 형태소의 의미를 통하여 이 단어의 의미를 표현하려고 의도하였겠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갓길'은 '컴퓨터'·'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외래어와 별차이를 느낄 수 없는 하나의 새로운 단어일 뿐이다. 용어의 생성·제정·폐기·소멸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현대국어 형태소의 여러 가지 성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일본어 차용어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른 말로 대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적으로 풍미한 反日·排日 감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의 언어의식으로 일본어를 배척하였다기 보다는, 일본어를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기피하였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영어 차용어 '키'·'오픈' 등은 기존어보다 간결하기 때문에 ('열쇠'보다 '키'가 간결), 혹은 참신하게 느껴지기 때문('개업'·'개장'보다 '오픈'이 참신하게 느껴질 수 있다)에 언중들이 수용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 일반 언어학에서 관찰의 주안점이었던 음운·문법·의미 이외에 '언중 의식'이 언어변화, 혹은, 변형생성문법의 용어로, '생성' 과정에 관여함을 관찰할 수 있다. 용어의 형성과 소멸 과정도 엄연한 언어 현상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固有語 用語와 民族 感情

19세기 말 개화기로부터 우리의 선각자들은 '국어사용'과 '민족자주독립'을 결부시켰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언어의 소멸'이 곧 '민족의 소멸'로

귀결된 사례를 흔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개화기에 ‘애국애족을 위한 국어 사용’의 실천 방법으로 國漢混用體 公用文이 등장하였고, 〈독립신문〉 같은 한글 전용 신문이 발행되었다. 그것이 선각자 주시경 선생에 의하여 ‘漢文·漢字 배척’, ‘고유어 용어의 창안’ 등으로 연결되었다. ‘국어 사랑’과 ‘민족 사랑’을 동일시하는 사상은 일제 통치기 조선총독부의 ‘조선어 사용 금지’ 정책에 반발하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광복 이후 각급 학교 교육에서 “국어 사랑 나라 사랑”은 계속 강조되어 왔고, ‘국어 사랑’의 실천 행위는 “외래어와 한자어를 배척하고 고유어를 사용하는 것”이란 생각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의식 속에 확고히 정착되어 왔다. 지금도 일반인은 물론이려니와 국어를 상당 기간 관찰하여 왔다고 자부하는 국어학자들 중에서 “고유어 사용, 즉 나라와 민족 사랑”이라는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주시경 선생의 정신은 고 최현배 선생님 등에 의하여 계승되어, 광복 이후 각 분야의 용어들이 고유어로 ‘순화’되었고, 지금까지 ‘순화어’는 가급적 고유어로 제정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광복 이후 지난 50 여년간 우리의 초·중등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고유어 사용 즉 민족 사랑’이란 교육의 성과를 이제는 냉정하게 다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과연, 일부 애국자 국어학자들이 희망하고 주장해 온 것과 같이, ‘고유어의 사용’과 ‘애족심의 발로’가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 이제 정직하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문법·명사·동사·형용사...”라는 용어를 쓰면 민족적 감정이 상하고, “말본·이름씨·움직씨·그림씨...”라는 용어를 쓰면 애족심이 울어난다면 당연히 후자 고유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언중들은 전혀 그러한 느낌을 가지지 않는다. 고유어와 더불어 한자어는 물론, 영어 차용어까지 국어-의사소통에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러한 언어생활에는 ‘민족적 감정’이 개재할 여지가 없고 개재시킬 필요가 없다.

文語는 인류의 문명사가 시작된 이래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지식과 지혜의 전달과 습득 수단이었기 때문에 문어 교육 즉 ‘읽고 쓰기 교육’은 교육의 기본으로 강조하여 왔다. 우리의 경우 ‘민족애와 고유어 사용’을 강조하는 동안 文語 교육 본래의 목적을 거의 망각해 왔다. 엄연히 우리 국어에서 생

산성이 높은 한자어의 교육을 '反事大主義'의 명목으로 백안시하고, 그렇다고 고유어에 의하여 新概念을 표현하는 단어의 창안 능력도 개발하여 가르치지 않은 결과, 거의 모든 학술·기술 분야에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가 신 용어의 요구를 충족시켜 왔다. 국어학/일반언어학 용어의 경우를 보면, 1950년 이전까지는 '이름씨'·'움직씨' 등과 같은 대체 고유어 용어의 제정 노력이 있었으나, 1950년대부터 도입된 서구 언어학의 개념은 거의 일본어에서 한자차용한 용어로 표현하여 왔을 뿐, 고유어 대체어의 제정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바로 국어학에서 필수 기초 용어인 '音素'·'形態素'·'變形生成文法' 등과 같은 용어들이 그 예가 된다. 애족적인 입장에서 고유어로 제정한 대체 용어들은, 아이로닉하게도, 표준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명사'를 대체할 '이름씨'의 제정은 '명사'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공존함으로써 같은 개념의 '명사'와 '이름씨' 두 단어가 국어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새 용어의 제정 과정에서 국어 자체의 속성과 기능에 비추어 적절한 어형을 찾기 보다, 막연한 애족심에서 생소한 고유어를 찾아 만든 용어들이 적지 않았다. 그 중에는 국어 언중의 전폭적인 호응을 받아 완전히 정착된 것이 있고, 기존어와 공존하는 것이 있고, 폐기된 것이 있다. 이 것도 현대 국어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관찰과 정리의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아래 II 장에서는 현대국어 용어에 관한 일반론을 제시하고, III 장에서는 새로운 용어의 형성과 관계되는 몇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였다. 예들은 가급적 최근에 국어에 등장한 용어들 중에서 취하였다. 국어의 어휘로 정착되지 못한 일시적인 유행어로 판단되는 용어들은 논외로 하였다. 예를 들면, '회토랑' ('횃집'+ '레스토랑'), '아우성'('아름다운 우리의 성'의 약어) 류이다.

II. 一 般 論

1. '用語'의 言語單位

언어의 구성 단위를 큰 단위로부터 작은 단위까지 文章·節·句·單語·

形態素·音素·音聲으로 구별한다면, '용어'는 대개 '단어'의 層位에 속하는 단위이다. 대다수 용어는 名詞 혹은 動詞의 名詞形(動名詞)이며 기타 품사를 간혹 볼 수 있다. 용어에는 한 단어로 구성된 單純語와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複合語가 있다. '변형'·'생성'·'문법'은 각각 단순명사이고, '생성문법'·'변형생성문법'은 복합명사이다. '한나라'·'새천년'·'헌책방'은 '관형사+명사+(명사)'의 복합어이며, '김매기'·'발갈이'·'모내기' 같은 고유어 농사용어들은 '명사+동명사' 복합어이다.

외래어의 경우, 原語에서 복합어가 국어에서는 대개 단일어이고, 원어를 축소한 어형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영어에서 work out 은 2 단어로 구성된 복합어이지만, 국어에서 '워크아웃'은 단순어이다. 영어에서 typewriter 는 type-writer 2개 단어, 혹은 type-wirte-er 3 개 형태소로 구성되었으나, 국어에서 '타이프라이터'는 분석할 수 없는 단순어이다. 'video cassette recorder' 는 '비디오'로, 'super market'은 '슈퍼'로, 'apartment house'는 '아파트'로 축약 변형되었다.

용어들 중에는 단어보다 큰 句나 단어보다 작은 형태소의 층위에 속하는 것도 있다. '만남의 광장'·'악의 축' 같은 예들은 句-용어, '민주화'·'정보화'·'의무화' 등과 같은 용어에서 '-화'(化)는 1970년대까지는 파생명사 형성에 사용하지 않던 (한자어)형태소-용어이다.

2. 用語 構成 形態素의 分類

국어 용어를 구성하는 형태소는 固有語·漢字語·外來語로 분류된다. 이 분류는 기본적으로 각 부류 명칭이 시사하는 어원에 의한 것이지만, 3 부류 각각 특징있는 문법적 기능으로 국어 용어를 구성한다.

1) 固有語形態素

언급할 필요도 없으나, '고유어'는 국어의 근간을 이루는 전래의 형태소들이다. 또한 과거 어느 시대에 국어에 정착한 외래어 차용어들도 우리의 言

衆意識으로 완전한 고유어이다. 예. 먹 ← 墨, 배추 ← 白菜, 가지 ← 茄子. 용어 형성에서 고유어형태소가 가지는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고유어 형태소는 단자음 혹은 단모음으로 구성된 접사로부터, 다수 음절로 구성된 단어까지 음운구성이 다양하다. 예. 단음형태소: -ㄴ(관형형 어미), -ㄹ(관형형 어미). 단음절형태소: 이-, 엇-, -것, -쪽. 다음절형태소: 아주머니, 맨드라미

(2) 용어 형성에서 고유어 자립형태소들은 前置 수식성분과 後置 피수식 성분 양쪽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의존형태소들은 전치 혹은 후치 어느 한 쪽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예. 전치·후치 자립형태소: 국밥, 떡국, 콩떡, 강낭콩. 전치 의존형태소: 이-, 그-, 저-. 후치 의존형태소: -것, -데, -쪽.

(3) 복합어 형성에서 고유어 형태소는 고유어 형태소와 (한자어는 한자어와)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 한 해, 두 달, (참고. 일년, 2개월)

2) 漢字語形態素³⁾

우리나라·중국·일본·월남 등 한자를 표기문자로 사용하여 온 나라의 언어에는 개별 漢字와 결부된 특수한 언어단위인 '한자어형태소'가 존재한다. 어느 언어 표기에서나 한자어형태소들은 다른 형태소들과는 다른 특수한 기능을 가졌고, 그 기능 때문에 어휘 생성에서 생산성이 높다. 국어 용어 형성에서 한자어형태소가 발휘하는 특징은 대략 아래와 같다.

(1) 한자어형태소들은 모두가 單音節이며, 어느 특정 한자의 字音과 일치한다. 특정 한자의 자음과 일치하지 않는 음절은 한자어형태소가 아니다.

(2) 한자어형태소들은 소수(약 130개 내외)가 자립형태소들이고, 대다수는 의존형태소들이다. 한자어자립형태소 예: 江, 册, 窓.

(3) 한자어형태소의 대다수는 口語로 단어가 될 수 없는 依存形態素들이다. 그러나, 현대국어에 출현하는 의존-한자어형태소 다수는 완전한 의미를 시현하고, 고유어나 기타 외래어 의존형태소들에 비하여 문법적 기능이 다

3) '한자어형태소'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宋基中(1992) 참고.

양하다. 예를 들면, 국어에서 ‘국(國)’은 단어가 될 수 없지만, ‘나라’라는 독자적 의미를 나타내고, ‘국어’·‘국민’·‘국가’ 등등의 단어에서는 前置성분으로, ‘각국’·‘아국’·‘조국’ 등등의 단어에서는 後置 성분으로 문법적 기능을 발휘한다. ‘어(語)’도 독자적으로 단어가 될 수 없는 의존형태소지만, ‘언어’라는 완전한 의미로 ‘국어’·‘영어’·‘베트남어’·‘컴퓨터언어’ 등에서는 후치 성분으로, ‘語文’·‘語族’·‘어형’ 등 단어에서는 전치 성분이다.

(4) 다수 한자어형태소는 ‘의미상의 품사적 기능’도 다양하다. ‘大學校’에서 ‘大’는 ‘學校’를 수식하는 관형 기능인데, ‘大小’(큰 것과 작은 것, ‘크고 작음’)에서는 명사적, ‘擴大’(크게 넓히다)에서는 부사적 기능이다. ‘下層’(아래층)에서 ‘下’는 ‘아래’라는 의미의 관형 기능, ‘下鄉’(시골에 내려가다)에서는 동사적 기능이고, ‘上下’(위와 아래)에서는 명사적 기능, ‘貶下’(아래로 떨어뜨리다)에서는 부사적 기능이다. (이 단어들이 한문어에서 발휘하는 문법적 기능은, 괄호 안의 번역과 같이, 체언 혹은 용언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국어에서는 모두 체언이다. 용언이 되려면 ‘하’와 같은 파생접사가 필요하다.)

(5) 이상과 같이 한자어형태소들은 완전한 의미를 시현하고 複數의 文法機能을 가졌기 때문에 고유어나 기타 외래어 형태소들보다 生産性이 높다. 또한, 한자로 표기한 새로운 용어는 한자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 쉽게 文字借用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아래 절에서 설명한다.

(6) 단어형성에서 한자어형태소는 한자어 형태소와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다.

(7) 한자어 복합어는 복합 단어의 구성 음절을 하나씩 취하여 略語를 만들 수 있다. 고유어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 예. 정통부 ← 정보통신부, 고대 ← 고려대학교

3) 外來語形態素

우리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차용어’를 ‘외국어’와 ‘외래어’ 2개 단계로 구별하는 전통이 있다.⁴⁾ 차용어가 아직 국어의 어휘로 정착하지 못한 단계

4) 40여년전 고 이회승 교수님께서 강의시간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유래하는 한자어가

가 '외국어'이고, 정착한 단계가 '외래어'이다. 중국어나 일본어의 차용어도 외국어와 외래어의 단계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외래어 중에서 한자로 표기될 수 있는, 즉 국어한자어형태소로 구성된, 어휘는 '한자어'로 분류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스시'·'壽司'[수사]·'성희롱'(性戲弄)은 모두 일본어 차용어들이지만, '스시'는 외래어, '壽司'[수사]('스시'의 한자표기)는 국어에 일반 용어로 정착하지 못하고 간혹 商號에만 쓰는 외국어, '성희롱'은 한자어이다.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외래어 용어들의 어원은 주로 영어이며, 개화기로부터 일제 통치시대에 일본어와 기타 언어에서 차용한 용어들이 소수 잔존하고 있다. 영어 차용어 중에는 일본어나 우리나라에서 합성된 擬似英語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는 아래 참고. 외래어 형태소들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졌다.

(1) 외래어형태소는 거의 모두가 자립형태소로서, 고유어 자립형태소와 문법 기능상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최근에 '생성'되어 정착되고 있는 외래어형태소 중에는 의존명사와 같은 성격의 형태소들이 존재한다. 예. '테크'(←technology, '회사'의 뜻으로 사용).

(2) 어원적으로 복수 형태소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단어도, 국어에서는 분석할 수 없는 단일어이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 'typewriter'은 'type-write-er' 3개 형태소로 분석되지만, 국어에서 '타이프라이터'는 단일 형태소이다. 'television'도 영어에서는 'tele-vision'으로 분석되지만, 국어에서 '텔레비전'은 단일 형태소이다.

(3) 로마자로 표기된 단어의 어두 표기자 字母은 약어로 사용될 수 있다. 한글이나 한자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 예는 아래 참고.

3. 새 用語의 形成

새 用語는 既存의 단어 혹은 형태소나 외국에서 도입한 借用語로 이루

국어의 일부인 '외래어'이지 '외국어'가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셨던 기억이 남아있다.

어진다. 현대국어에 형성된 新用語들은 구성 성분에 따라 대략 아래와 같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既存語로 새로운 의미 표현

예. 골뱅이 (인터넷 주소에 쓰이는 @ 표), (프로그램을) 설치하다/깔다, (데이터를) 저장하다

2) 기존 형태소를 합성하여 새로운 의미 표현

예. 노래방, 휴대전화, 자판(字板)/글자판,

3) 의성·의태어 혹은 무의미한 음성을 결합

예. 삐삐 (영어: beeper); 고유명사: 마주앙(포두주 이름), 코오롱(상사 이름)⁵⁾

4) 복합한자어의 축약, 로마자표기의 어두자 모음 (acronym)

한자어 예. 대선(←대통령선거), 총선(←국회의원 총선거), 자판기(←자동 판매기), 정통부(←정보통신부); 로마자표기의 어두자(주로 고유명사), DJ[디 제이]←(Kim) Dae Jung/(김)대중, YS [와이에스]←(Kim) Young Sam/(김)영삼, KT[케이티]←Korea Telecommunication 한국통신, LG[엘지]←Lucky Geumsung/럭키금성

5) 외국어의 借用

예. 컴퓨터, 모니터, 마우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린터

5) '마주앙'의 근원은 '마주 앉아 (마시다)', '코오롱'은 '코리아나라이롱'의 축약어라고 설명하지만, 두 가지 다 문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造語이기 때문에, 구성 음절들이 의미를 발휘하지 못한다. 무의미한 음절의 결합일 뿐이다.

6) 翻譯借用 (calque, loan-translation) -- 다수는 일본어 용어의 漢字借用語

예. 대화상자 (dialog box),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知識産業 (knowledge industry), 窓(window), 도구(tools)

7) 일본 용어의 漢字借用 -- 한자어 다수가 이 범주에 속함. 아래 참고.

예. 情報化, 世界化戰略, 過消費, 性戲弄, 三冠王, 機制(mechanism)

8) 借用語 혹은 차용어의 복합에 새 의미 부여 -- 일부는 일본어 용어의 차용

예. 가든(←garden), 핸드폰(←hand phone), 모델하우스 (←model house), 초코파이 (←chocolate pie)

9) 차용어를 축약, 새 의미 부여 -- 다수는 일본어 용어의 차용

예. 테크 (←technology), 슈퍼 (←supermarket), 오피스텔 (←office + [mol]tel), A/S [애프터서비스] (←after service)

10) 차용어와 기존어의 복합 -- 일부는 일본어 용어의 차용

예. PC방,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 IT산업, 財테크.

이상 新用語의 범주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다만, "7) 일본어의 한자차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다른 언어에서 용어를 借用(borrowing)할 때 일반적으로 '語音'의 차용이다. 국어에서 통용되는 '라디오'·'텔레비전'·'필름' 같은 단어들은 모두 영어

에서 차용한 단어들이며, '우동'·'템뿌라' 등은 일본어 차용어이다. 그런데, '한자차용'의 경우는 語音은 상관없고, 오직 '한자 표기'와 '새로운 개념'만 빌려다가, 기존의 국어한자음으로 발음함으로써 新用語가 형성된다. 예를 들면, 19세기말에 어느 日人이 미국의 화폐단위 '달러'의 기호 '\$'와 '弗'자가 유사한데 착안하여 그 글자로 'dollar'를 표기하고 日語로 [dorɯ]로 발음한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음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弗'자가 표기하는 신개념만 도입하여 전승의 국어한자음 [불]로 읽었다. 그 결과 국어의 '불'과 영어 'dollar' 간에는 음성적 유사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한자 표기 '歐羅巴'를 전승한자음 [구라파]로 읽어 (중국한자음으로는 [lou-lo-pal]) 원음과 현격히 차이가 있게 되었다. 오늘날 국어에서 '구라파'는 잘 쓰지 않으나, '구'는 '유럽'의 의미를 가진 한자어 의존형태소로 '서구'(西歐)·'동구'(東歐)·'구주공동체'(歐洲共同體) 등 단어에 빈번히 나타난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 대부분은, 19세기 후반 이전에는 중국의 문헌에서, 그 이후 지난 1 백여년 동안에는 일본에서 만든 용어의 漢字表記를 도입한 '한자차용어'들이다.⁶⁾

III. 新用語에서 관찰되는 국어 현상

1. 관찰의 대상 현상과 '설명'의 기본 태도

신용어들도 국어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어의 음운 및 문법적 특성을 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실 기존의 고유어와 한자어 형태소로 '생성'되는 신용어들은 음운론적 혹은 형태론적으로 특이한 성격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외래어'는 "국어화된 외국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국어화'는 우선 "구성 음의 국어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단어를 구성하는 개별 음이 原語의 음성학적 특징을 상실하고 국어의 음성학적 특징을 시현한다는 뜻이다. 원어의 음성과 國語化된 음성을 비교하고 음성학적 관계를 관찰하

6) '문자차용어'(character-borrowing)·'한자차용어'(Chinese-character-borrowing)는 필자가 송기중(1998)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사용한 용어이다.

면 특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고, 그로부터 국어 음성/음소의 특징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개별 음성단위 차원에서는 완전히 국어화되었지만, 音節構造(syllable structure)와 音節連結(syllable sequence)에서는 고유어나 한자어에 부재하거나 희소한 형식들이 적지 않다. 또한, 외래어에서는 국어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규칙적 音韻變異가⁷⁾ 실현되지 않는 예들을 관찰할 수 있다.

신용어들의 형태론적 고찰의 가치는 지난 수십년간 '제정'된 용어들을 관찰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제정'된 용어들의 성공 혹은 실패의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현대국어의 형태론적 특징의 일단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또, '만남의 광장'·'표파는 곳'과 같은 '旬-용어'들이 다수 등장하는 현상도 관찰과 설명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략 1950년대부터, 20세기 초 쏘슈르의 기술언어학으로부터 출발한 유럽과 미국의 현대언어학 '이론'들을 도입하여 국어 현상을 설명하는데 援用하여 왔다. 그 이론들은 당연히 서구 언어의 현상을 관찰하여 일반화한 결론들이다. 국어의 어떤 현상이 서구어의 현상과 같은 성격일 때 그 '이론'의 적용은 적절하였다. 그러나, 국내 학자 국외 학자를 막론하고 국어에만 존재하는 어떤 특수한 현상을 서양 언어학의 이론을 빌어 명쾌히 설명한 예는 극히 드물다. 대표적인 예가 국제음성학회(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의 基準母音(Cardinal Vowels) 4 각도에 의한 '모음조화 현상'의 설명이다. 지난 50여년간 국어의 모음조화에 대한 논문이 수십편, 어쩌면 1백편 이상, 발표되었고 그 대부분은 국어 모음들을 모음 4 각도상에 배치하고 설명하나 그 중 확고한 정설로 인정된 것이 없다. 또 다른 예는, 그 명칭 자체가 비언어학적인 '사이 시옷 첨가 현상'이다. 이것 역시 아직 정설이 없다고 볼 수 있다.

7) 필자는 '음운변화'와 '음운변이'를 조금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여 왔다. '음운변화'는 역사적으로 변화하여 정착된 음운변화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중세 국어 '대'·'도'·'테' 등이 '저'·'조'·'제'로 변화한 것 등. '음운변이'는 공식적 현상으로, 예를 들어, '국민'의 첫음절 '국'이 [꺠]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이다. 宋基中 (1992) 16-17면 참고.

지난 30여년간에는 주로 미국에서 주로 영어를 관찰하여 개발된 변형생성문법 및 후속 이론들을 현대국어 현상의 설명에 적용한 연구 논저들이 수 없이 발표되었다. 그 중에는 국어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기여한 논문도 없지 않으나, 대부분은 같은 분야를 전공하는 국어학자의 기억에조차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어 현상의 세칭 '설명'을 위하여, 어느 외국 학자가 발표한 '이론'에 맞거나 그 이론을 수정하는 '규칙'의 제시에 급급하여, 동서고금 학자의 기본 기능인, "현상 그 자체에 대한 다각적이면서도 세밀한 관찰"에 소홀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른 기회에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로 한다. 아래, 차용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국어 현상 몇 가지의 기술에서는, 선부른 '이론적 설명' 보다는 '현상의 관찰 결과'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2. 音聲·音韻論的 現象

국어에 '외래어'로 정착한 외국어 용어들은 대개 原語의 음성이 국어의 음성학적 특징과 음운체계에 따라서 변화된 형식들이다. 조음음성학적 혹은 음향음성학적 관점에서, 국어에 부재하는 어떤 외국어음은 국어 사용자가 聽覺感知(auditory perception)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화된다고 볼 수 있다. 국어 사용자는 생소한 외국어음을 자신이 지닌 국어음의 분별능력(곧, '음운체계'이다)에 의거하여 이해하고, 국어에 존재하는 어떤 음과 유사하게 혹은 동일하게 感知(perceive)한다. 원어음이 차용어음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작용한 음성학적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은 별도로 수행해야 할 방대한 주제이다. 본고에서는 현대국어 외래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영어차용어들이 차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음성·음운론적 기본 현상 몇 가지를 기술한다.

1) 단일 영어음에 대응하는 複數의 國語音

영어의 어떤 단어를 차용한 외래어가 국어에 복수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예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gas'[gæʃ]를 차용한 외래어가 [가스·

[까스]·[개스]·[깨스] 등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영어와 국어의 음성학적 차이

단일 영어음에 복수 국어음 대응 현상의 원인으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두 언어 음소들의 현격한 음성학적 차이이다. 영어 음소들 중에 국어 음소들과 조음 및 음향음성학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영어: 국어 음소의 대응에서 음성학적으로 일치하는 짝은 /n:/~ㄴ/, /m:/~ㅁ/, /-ng:/~ㅇ/, /h:/~ㅎ/에 불과하고, 그 외의 대응 음소들은 양 언어간에 조음 방법(articulation)·변별자질(distinctive features)·異音(allophones)이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국어 화자들은 대다수 영어음을 원음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국어에 존재하는 유사음, 즉 원 영어음과 다른 음과 일치시켜 이해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국어 능력(idiolectal competence) 혹은 방언적 배경(dialectal background) 등에 따라 상이한 국어음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영어 모음 [ɪ]는 국어에 음소로 존재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오]로, 어떤 사람은 [에]로 감지한다. 미국 뉴욕주의 수도는 주의 북쪽에 위치한 'Albany' [ɔ:lbeni]이다.⁸⁾ 이 도시의 이름을 그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대개 '올바니' 혹은 '올베니'라고 표기하고, [올바니] 혹은 [얼바니] 혹은 [얼베니]라 발음하며, 타지의 동포들은 흔히 [알바니]라고 발음한다. [알바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기억하는 라틴문자 'a'의 기본 표기음으로 발음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Albany'의 어두 음절 모음은 하나인데, 국어 원어민들(native speakers)은 국어음 [오]·[어]·[애] 3 가지로 대응하는 것이다. 'lobby' [lɒbi/lɒbi]의 국어 차용어는 영어 철자법에 따라 '로비'로 표기하고 발음은 철자대로 발음하면 [로비]이지만, 근래 영어를 습득한 세대의 발음은 영어 발음에 따라 [라비] 혹은 [러비]로 실현된다. (아래 참고.)

8) 여기서 국어 차용어가 아닌 미국의 도시 이름을 예로 든 것은, 국어 차용어는 역사적 배경·한글 표기의 전통 등이 개재하여, 영어음:국어음의 순수한 대응 양상을 보여주는 예를 찾기 때문이다.

(2) 역사적 배경

단일 영어 용어가 국어에 차용되어 복수 형식으로 구현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청취자의 '영어음 감지-국어음 대응'의 결과가 상이하었던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국어에 존재하는 영어 기원 외래어들의 경우,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도 작용하였다.

영어 용어는 120여년전 개화기로부터 국어에 차용되었다. 개항과 더불어 서구인의 입국과 활동이 허용되면서, 다수 선교사들과 외교관 및 상인들이 주재하였고, 우리나라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서구 문물제도의 습득과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이어서 도래한 일제 통치 시대에는 일본을 경유하여 서구 사상과 문물이 도입되었고, 1945년 광복 이후 미국의 영향하에 남한에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5년후 1950년에 6.25 동란이 발발하여 민족의 대이동이 발생했다. 그러한 역사 과정은 현대국어에 다양한 흔적을 남겼고, 특히 영어 차용어들의 음운론적 다양성을 시현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 확실하다.

(3) 차용자의 모국어

우선, 19세기 후반부터 일제통치 기간에 도입되어 국어에 정착했던 영어 혹은 기타 서구어 용어의 음운적 특징은, 도입 주체의 모국어가 어떤 언어였는가에 따라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떤 영어음을 국어의 어떤 특정 음으로 대응시킨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는가, 영국이나 미국 선교사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有聲性(±voicing)은 영어의 파열음 체계에서는 주요 변별자질이지만 국어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유기성(±aspiration)과 경음성(±tension)은 국어의 파열음 체계에서는 주요 변별자질이지만 영어에서는 아니다. 그 때문에, 국어의 어두 無氣-無硬-(無聲) 파열음, 즉 平音 [ㄱ]·[ㄷ]·[ㅂ]을 서구인들은 대개⁹⁾ 저들의 언어에서 분별 특징인 '無聲性'에 의거 [k]·[t]·[p]로 대응시켰다. 그리고, 그 역도 성립하는 것으로 추측하여 서구어의 [k]·[t]·[p]를 한국어로 소개할 때, [ㄱ]·[ㄷ]·[ㅂ]으로 대응시켰고, 유성음 [g]·[d]·[b] 역시 [ㄱ]·[ㄷ]

9) 서양인 한국어 연구자들은 대부분 국어의 [ㄱ]·[ㄷ]·[ㅂ]을 k·t·p로 전사하였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g·d·b 로 표기하였다.

ㄱ·[기]로 대응시켜, 서양어의 어두 무성-유성 차이가 국어 표기에서는 구별 되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착된 일반 외래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지-대응시킨 국어음으로 대부분 바뀌었지만, 기독교 관계 용어에는 오늘날 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다수 있다. 1903년에 서울에서 선교사들이 편찬 발행한 A List of the Proper Names of the Bible in Korean 에서¹⁰⁾ 몇 가지 예를 취하여 보이면 아래와 같다.

- k- : ㄱ- Canaan 가나안, Christ 그리스도, Kenan 케난, Kidron 기드론, Kir 길
- g- : ㄱ- Galilee 갈릴니, Gaza 가사, Gob 곱, Gur 굴
- t- : ㄷ- Tabitha 다비다, Tekel 드켈, Thessalonians 데살노니가사름
- d- : ㄷ- David 다윗, Dimon 디몬, Dor 돌
- p- : ㅍ- Paphos 바보, Parosh 바로스, Peter 베드로, Phillip 빌립
- b- : ㅂ- Babel 바벨, Beeliada 브엘냐, Bul 불, Buz 부스, Buzi 부시

위의 예들에서 서구어의 어두 무성파열음과 유성파열음을 예외 없이 동일하게 국어의 평음으로 전사한 것은 '유성성'의 유무만 감지하는 서구인이 한국어음을 이해하여 대응시킨 결과로 이해할 수 있고, 'Gaza 가사'·'Buz 부스', 'Buzi 부시'에서 'ㄱ'을 'ㅂ'으로 대응시킨 것도 저들의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Tekel 드켈'에서 어중 '-k-', 'Christ 그리스도'에서 '-t-', 'Paphos 바보'에서 '-ph-'까지 '-ㄱ'·'-ㄷ'·'-ㅂ'으로 표기한 것은, 국어의 평음이 모음간에서 유성화되는 현상도 무시하는 표기, 혹은 어중 유기음 [-ㄱ-]·[-ㄷ-]·[-ㅍ-]를 어중 무성음 [-k-]·[-t-]·[-p-]와 일치시킬 수 없다는 英美人 선교사들의 언어 능력에 근거한 판단에서 나온 표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Galilee'를 '갈릴리'가 아닌 '갈닐니'로, 'Phillip'을 '빌립'이 아닌 '빌님'으로, 'Beeliada'를 '브엘랴'가 아닌 '브엘냐'로 한글 표기한 것은, 국어의 음운변이 [-ㄷ ㄹ-] > [-ㄹ ㄴ-]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

10) 金敏洙·河東鎬·高永根, 『歷代韓國文法大系』, 第 3部 第2册(塔出版社, 1985)에 영인된 것을 참고하였다.

사들이 국어에 대한 이해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위 기독교 성경어의 한글 표기가 국어를 습득한 서양인의 聽覺感知(auditory perception) 내용을 반영한다면, 같은 시대인 1897년에 學部編輯局에서 번역 출판한 『泰西新史攬要』의 서양어 人名과 地名의 한글 표기는 영어음을 상당히 정확히 습득한 우리나라 사람이 감지한 서양어음을 반영한다. 위 성경용어와 비교하기 위한 예들만 몇 가지 선택하여 보인다.¹¹⁾ 원문에는 영문표기가 나타나지 않으나 추정하여 괄호 안에 부기한다.

- k- : ㅋ- 코시카(Corsica), 캐나다(Canada), 코란(Koran)
 g- : ㄱ- 그리스(Greece), 그라스코(Glasgow)
 : ㄱ- 까에타(Gaeta),
 t- : ㅌ- 티모어(Timur), 텐니스(Tennessee)
 d- : ㄷ- 듀크 오웬 브룬스윅(Duke of Brunswick), 돈(Don)
 : ㄷ- 댄톤(Danton), 덴마크(Denmark)
 p- : ㅍ- 파리스(Paris), 프뤼시아(Prussia), 포르투갈(Portugal)
 b- : ㅂ- 북하라(Bokhara)
 : ㅂ- 벨지엄(Belgium), 써밍햄(Birmingham), 썬락 씨(Black Sea),
 썬헤미아(Bohemia).

위 예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무성음표기자 'k·t·p'는 예외 없이 유기음 'ㅋ·ㅌ·ㅍ'으로 전사하였다. 지금 우리가 청각감지하여 일치

11) 金敏洙·河東鎬·高永根, 『歷代韓國文法大系』, 第3部 第2冊에 영인된 『泰西新史攬要』의 〈人地諸名表〉(塔出版社, 1985)를 이용하였다. 이 책은 원래 영어의 중국어역본을 국어로 증역한 것이기 때문에, 국어역의 대본은 중국어이다. 그러나, 고유명사들의 한글 표기는 대응시킨 한자표기를 따르지 않고 원래 영어음에 의거한 것이 분명하다. 이 사실은 〈表〉의 맨 첫 3개 수록항만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一節	유럽	歐羅巴	洲
	노르 씨	北海	海
	미디터라니안	地中海	海

시키는 국어음과 같다. 그러나 유성음표기자 'g·d·b'는 대부분 경우 '시·ㄱ·ㄷ·ㅂ'으로 전사하고, 간혹 평음 'ㄱ·ㄷ·ㅂ'으로 대응시켰다. 영어의 유성과열음을 경음으로 일치시킨 것에 대해서는 아래 다시 기술한다. 그 밖에도 이 책에서는 'f'를 'ㅍ-', 'v'를 'ㅂ-', 'l'을 'ㄹ-', 'g·[dʒ]'를 '-ㅈ'으로 전사하여, 전사자가 국어에 부재하는 음들을 감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어 외래어들 중에는 일본인이 청각감지한 영어음을 우리나라 사람이 다시 청각감지한 예들도 다수 있었다. 대개 일본어에 부재하는 [a]나 [æ] 모음들이 포함된 용어들이다. 예를 들면, [가스~까스](gas), [빠꾸](back), [빠다](butter), [바스~빠스](bus), [카텝](curtain), [한도루](handle), [햄버꾸](hamburger)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 청각감지한 영어음으로 바뀌었다. 즉, [개스~깨스]·[백크]·[버터]·[버스~뻬쓰]·[커튼]·[헨들]·[햄버게] 등으로 치환되었다.

(4) 영문 철자법과 실제 발음의 괴리

또 다른 원인은 영어 단어 철자법과 실제 발음의 괴리이다. 다수 영어 단어의 로마자 철자법은 역사적으로 영국 영어음을 표기한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책을 통하여 영어를 습득하였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용어의 로마자 표기도 한글과 같이 표기자 1 字를 1 音으로 고정 발음하는 습관이 있어서, 영어 용어의 철자법이 시현하는 발음과 미국인의 실제 발음을 청각감지한 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면, Tom·John·Robert 등 혼한 영어 이름들을 전통적으로 [툼]·[죤]·[로버트]로 이해하여 왔는데, 미국인의 실제 발음은 [탐]·[잔~잔]·[라버트~콰버트] 같이 들린다. 'non-stop'은 한글 표기가 '논스톱'으로 정착된 듯하지만, 영어를 습득한 사람은 [논스탑]보다 [넌스탑~넌스맙]에 가깝게 발음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로비'(lobby)는 [라비], '멜로디'(melody)는 [멜러디], '보디가드'(bodyguard)는 [버디가드]와 가깝게 발음할 것이다.

(5) 방언의 음성학적 차이

방언의 음성학적 차이도 단일 영어 용어를 상이하게 청각감지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상도 방언과, 근래에는 중부 지방의 일부 청소년 층 방언에서도, [에]와 [애]가 구분되지 않는다. 또 [리]를 경상도 지방 사람들은 [리]와 일치시키는데 (우리의 표준 외국어표기법도 그러하다), 중부지방 사람들은 [후]와 더 유사하게 느낀다. 국어에서는 [리]과 [리] 구분되지 않는데, 그래도 모음 사이의 [리]은 [리]로 이해하고, [리]은 단일 [리]로 감지하는 것이 중부 방언 화자들의 일반적이 경향일 것이다. 경상도 방언 화자들은 보통 둘 다 단순 [리]로 이해하고 발음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리하여 'family'는 중부지방 화자들에게 [훼밀리]가 가장 근접된 발음 형식인데, 남부지방 사람들에게는 [페밀리] 혹은 [페미리]이다. 분명히 중부지방 젊은 세대로 [에]와 [애]를 구별 못하는 사람의 표기로 보이는 '훼밀리'가 음료수 병에 'family'와 같이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훼밀리]로 대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영어의 유성파열음 [g·d·b·dʒ]를 경음 [ㄱ·ㄷ·ㅂ·ㅈ]로 청각감지하는 현상도 방언(서북방언?)의 음성학적 특성과 관계있는 듯하다. 아래 다시 거론한다.

(6) 기타

어느 관공서 직원 식당에 영양사가 매주 게시하는 식단표에 음식명이 '햄버그'·'숄'으로 표기된 것을 여러번 보았다. 분명히 영어의 'hamburger'와 'soup'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 필자가 이해하는 'hamburger'의 발음은 [햄버거], 'soup'은 [숄~수웁]이 더 가깝다. 필시 그 영양사는 [-기]보다 [-그], [-웁]보다 [-웁]이 더 원음에 가깝다고 느낀 듯하다. 이러한 想像原音도 간혹 외래어의 다양화에 일조하는 듯하다. 비슷한 경우로, 'super-market'의 차용어 [슈페]는 [수페]가 더 가깝고, 'sofa'의 차용어 [쇼파] 혹은 [쏘오화]가 더 원음에 가깝다. [슈페]와 [쇼파]는 필시 일본어를 경유하여 도입된 영어 차용어인 듯하다.

2) 영어 原音과 국어 借用語音의 음성학적 차이

(1) 영어음과 국어음의 표준 대응

위 "1)"에서 보인 것과 같이, 영어에서 단일음이 차용어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상이한 국어음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영어음의 차용에서 대응시킨 '일반적'인 국어음은 지적할 수 있다. 사실은 고유어의 발화에서도 여러 가지 異音으로 실현되지만, 그 중 하나를 '표준형'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어머니'는 중부지방 방언 화자 한 사람의 발화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어무니] 혹은 [어므니]로 자주 실현되고, '아버지' 역시 [아부지]·[아브지]로 흔히 실현된다.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영어 차용어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형식을 '표준형'으로 지칭할 수 있다.¹²⁾

본고에서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자음의 대응에서 한 두 가지만 살펴보고, 복잡한 양상을 띠는 모음의 대응은 후고로 미룬다. 현대국어 중부 방언 화자의 청각감지에 의한, 영어 자음에 보편적으로 대응하는 국어 자음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국제음성기호(IPA)와 배열방식으로 제시하지만, 'j' 를 보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y'로 바꾸었다.

p	b	f	v	m	t	d	θ	ð	s	z	n	tʃ	ʒ
표	ㅂ	표후	ㅃ	ㅁ	ㅌ	ㄷ	ㅈ	ㅊ	ㅅ	ㅆ	ㄴ	ㅈ	ㅉ

ʃ	ʒ	k	g	l	r	w	y	h	ŋ
ㅅ+	ㅉ	ㅋ	ㆁ	ㄹ	ㄷ	ㄹ	우	이	ㅇ

위의 영어음-국어음 대응을 독자가 참고하기에 편하도록 한글자모에 의거(대략 아-설-순-차-후 음 순서)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ll' 뒤에 있는 대응음들이 앞에 있는 것들과 성격이 다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2) 『외래어 발음 실태 조사』(국립국어연구원 2001년)에 외래어 170개항의 상이한 발음 형식들을 통계조사하여 수록하였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고유어를 조사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측된다.

라, 영어 원어민이 감지한 국어음을 서술한 내용이 적지 않았다.¹³⁾

영어와 국어 두 언어 원어민이 다르게 인식하는 사항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청각감지가 가능한 최소 단위'(the minimum unit of auditory perception)인 듯하다. 현대국어 원어민이 청각감지할 수 있는 음성의 최소 단위는 '국어 음절'과 일치한다. 그 '최소단위'의 최소 구성성분은 1개 모음이고, 모음 앞과 뒤에 자음을 하나씩 가질 수 있으며, 모음은 단모음이거나 2중모음이다.

국어에서 자음은, "(홀소리에) 닿아서 나는 소리"라는 의미로 붙인 '닿소리'라는¹⁴⁾ 명칭이 시사하는 것과 같이, 독자적으로는 발음과 청각감지가 불가능하고, 모음과 통합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현대국어 원어민들이 지닌 보편적인 의식이며, 그것이 곧 국어의 특성이 된다.(이것은 프랑스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¹⁵⁾ 자음은 해당 조음부위가 그 자음의 생산에 적합한 모양을 갖추는 순간까지이고, 발성은 선행 혹은 후행 모음과 결합되어야 가능하다. 상하조음부위(다음 항 참고)가 접촉하거나 밀착된 '긴장'상태에서는 청각감지 가능한 발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음하부가 내려가며 상하 간극(間隙)이 벌어지고 '이완'되면서 다량의 기류가 구강으로 흘러 나오면서 비로소 감지 가능한 음성이 생산된다. "상하조음부위가 벌어지고 이완된 상태에서 다량의 기류가 통과하며 생산되는 음성"이 곧 '모음'이다. 음절말 자음(종성)은, 모음의 발성 상태인, 벌어지고 이완된 상하조음부위가 다시 접촉함으로써 생산된다. 국어 어말자음 중에는 상하조음부위가 접촉하지 않고 밀착되어 발성되는 자음이 없다. 즉 모든 자음이 음절말에서 상하조음부의 접촉으로 끝

13)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어 음운체계에 /y/와 /w/ 음소를 설정하는 태도이고, 국어 평자음 /ㄱ/·/ㄷ/·/ㄹ/·/ㅂ/ 등의 '유성음화'를 논하는 것이다. 아래 기술한다.

14) 사실은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조어이다. '닿'은 동사의 어간으로 관형사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할 수 없다.

15)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전통 韻學에서는 최소 발성 단위를 '聲母+韻母'로 분석하였고,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국어의 단위를 '初聲+中聲+(終聲)'으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아·어·오' 등과 같이, 현대국어 언중들의 관점에서는 무의미한 초성 'ㅇ'자를 표기한 것이다. 일본어의 특성으로 끄는 제 1의 사항이 '開音節性', 즉 어말 자음도 [-n/m/ngl]를 제외하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모음을 붙여야 감지할 수 있고 발음할 수 있는 것이다.

난다.

국어 원어민들과는 달리, 영어 원어민들은 음절을 구성하지 못하는 單子音도 청각감지 및 발성 가능하다는 의식을 지녔다. 국어에서 어두자음은 그 자음의 발성에 적절한 조음부의 모양을 갖추는 순간까지, 즉 상하조음부가 접촉하거나 밀착된 순간까지라고 표현했는데, 영어에서는 상하조음부가 약간 떨어질 때까지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영어 원어민들에게 [ki는 단독으로 발음할 수 있는 단위이지만, 국어 원어민들이 영어 [ki에 대응시키는 [키는 단독으로 국어 원어민들이 청각감지 및 발음할 수 없는 단위이다. 국어 원어민이 영어 [ki에 가장 근사하다고 느끼는, 감지·발화 가능한 국어 음은 모음 [i를 수반하는 [ki이다. 영어 원어민이 [ki를 발음할 때는 혀뿌리가 연구개에 닿았다가 약간 떨어지는데, [ki를 발음할 때는 더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영어 [ti를 발음할 때보다 그에 대응시키는 [트를 발음할 때 조음상하부 간극이 더 벌어지고, [p]에서보다 [피]에서 더 벌어진다.

이와 같이, 영어 원어민이 청각감지할 수 있는 음성의 최소단위는 영어에 존재하는 모든 分節音(segmental sounds), 즉 모음과 자음들이다. 따라서, 영어 원어민들이 이해하는 '영어의 음절'은, 국어 원어민이 이해하는 '국어의 음절'과 같이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아니다.

(3) 母音과 子音의 구별

口腔音을 調音할 때 관여하는 部位(place of articulation)는 上脣(윗입술)-上齒(윗니)-치조-경구개-연구개가 이어진 上部(윗부분)와 下脣(아랫입술)-下齒(아랫니)-혀(혀)-喉頭가 있는 下部(아랫부분)로 나누어진다. 구강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생산되는 음성들은 영어에서나 국어에서나 子音으로 감지되고, 음운론적으로 자음의 특성을 발휘한다. 현대언어학의 용어로 '파열음/폐쇄음'·'파찰음', 또는 '장애음', 현대 미국언어학의 자질론으로 '-continuant'로 분류하는 모든 음성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또, 마찰음, 혹은 '+continuant'의 일부도 이 범주에 속한다. 국어의 마찰음 [시·[씨]·[히]와 영어의 [s]·[ʃ] 등은 상하부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아래 참고), 영어에서 'fricatives' 혹은 '+continuant'로

분류하는 [f]·[v]·[θ]·[ð]·[tʃ]·[dʒ]는 다소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류에 속한다. 따라서, 국어 음성의 관점에서는 이 자질 ‘±상하부접촉’이 쉼스키의 영어음성학에서 설정한 ‘±continuant’보다 더 확연한 변별자질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어에서나 국어에서나 ‘모음’으로 감지되고, 음운론적으로 ‘모음의 특징’을 발휘하는 음성들은 전부가 구강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떨어진 상태에서 생산된다. 즉, ‘±상하부접촉’ 자질을 공유한다.

그런데, 어느 언어에나 구강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모음을 생산할 때 보다 좁혀진 상태, 즉 협착(constriction) 상태에서, 기류가 통과하면서 생산되는 음성들이 존재한다. 음성학의 분류로 통칭 ‘마찰음’(fricatives)과 ‘근접음’(approximants)의 일부가 이에 속한다. 그 중 어떤 것은 자음과 같은 기능을 하고, 어떤 것은 모음과 같이 기능하는데, 이는 언어마다 다르다. 즉, 조음음성학적 혹은 음향음성학적으로는 동일한 음성이지만, 어느 언어에서는 여느 자음들과 같이 나타나고 어느 언어에서는 여느 모음과 같이 나타나는 음성들이 존재한다. 이 설명에서, ‘자음과 같이’ 혹은 ‘모음과 같이’의 의미는 국어의 경우에 분명하다. 음절의 초성이나 종성으로 나타나면 ‘자음과 같은 기능’이고, 독자적으로 발음할 수 있고 음절의 중심을 이루면 ‘모음과 같은 기능’이다.

위 영어음과 국어음의 대응표에서 이 범주에 속하는 음들은 [s]·[z]·[ʃ]·[ʒ]·[w]·[y]·[h]이며, 영어에서 독립 음소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양순음 [θ]·[ð]도 같은 부류이다. 이 음성들 중에서 [y]와 [w]를 국어 원어민들은 각각 [이]와 [우]의 별종, 즉 ‘모음’으로 이해하고, [θ]·[ð]는 사람에 따라 [후]·[위] 혹은 [후]·[부]와 같이 다르게 감지한다. 국어의 [아]·[예]·[와]·[웨]등 음절의 초성을 반모음 [y]와 [w]로 설정하는 것은 영어 원어민의 청각 감지에 의거한 것이다. [y]와 [w]는 국어에서 독자적으로 발음 및 감지할 수 있는 음성이 아니다. 영어에서 [y]와 [w]는 흔히 ‘반자음’(semi-consonant)으로 분류하지만, 음운론적으로 자음의 성격을 시현함은 잘 알려져 있다. 국어에서 [y]와 [w]는 마치 단모음 [ㅏ]·[ㅓ]·[ㅜ] 등에 첨가되는 초분절자질(suprasegmental feature)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필자의 이 견해

는 보다 세밀히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조음 상부와 하부의 접촉 없이 생산되는 국어 자음은 [시]·[씨]·[히인] 데, 이들이 [이]·[위와 다른 점은 '조음 상하부의 근접성'과 '기류의 강한 마찰성'을 겸비한 것이다. [시]·[씨]는 혀의 앞부분, 즉舌尖이나 舌端이 상부에 바짝 가까이 올라간 상태에서 생산되고, [히]는 혀뿌리가 연구개에 바짝 올라간 상태에서 생산된다.

따라서, 국어에서 자음이 되는 음성학적 요건은 “조음 상하부의 접촉” 혹은 “조음 상하부의 근접과 기류의 마찰”, 2 가지 중 하나로 규정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상하부의 접촉이 없거나, 상하부가 근접하더라도 기류의 강한 마찰을 수반하지 않는 음성은 자음이 아니다. 즉 모음이다. 영어에서는 ‘조음 상하부의 접촉’이 자음의 성격 규정에서 우선적 자질(primary feature)이 아닌, 잉여자질(redundant feature)로 인식되는 듯하다. 또한, ‘협착성+마찰성’ 역시 마찰음의 공통특질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자음’의 정의가 구구해지는 듯하다. 국어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¹⁶⁾

음운론적 차원에서 국어의 자음-모음 구별은 더욱 명료하다. 서양 언어학에서 모음과 자음을 음운론적으로 구별할 때 흔히 모음은 음절의 핵(nucleus)을 이루는 음성이고, 자음은 음절의 주변(margin) 성분--초성(onset)과 종성(coda)--으로 설명한다. 이는 국어의 모음-자음 규정에 정확히 부합하는 설명이다. 영어에서도 모음과 자음을 음절의 구성 성분으로 볼 때 그러한 설명이 유효하지만, 모음이 부재하는 음절의 처리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단어 ‘little[lɪtl]에서 [-tl], ‘able[eɪbl]에서 [-bl]을 음절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인정하자니 ‘핵’이 없는 음절이 되는 것이다. 국어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없이 모음은 ‘국어 음절의 핵’이다.

16) 서양의 현대언어학에서 子音(consonants)과 母音(vowels)의 차이를 명확히 정의하려는 노력은 역사가 오래고, 음성학적 정의와 음운론적 정의가 다르다. 이는 음성학 개론서나, 또는 일반언어학 개설서 혹은 언어학사전류에나 자음과 모음에 대한 정의가 대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자음과 모음의 구별이 여기 기술하는 것과 같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무성음 [k,t,p]→유기음 [ㅋ,ㅌ,ㅍ], 유성음 [g,d,b]→무기음 [ㄱ, ㄷ, ㅂ]의 대응

위 영어음과 국어음의 대응 목록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대국어 중부방언 원어민들은 영어의 어두 유성음을 국어의 평음으로 대응하고, 어두 무성음은 유기음으로 대응한다. 이 현상은 비교적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영어에서 무성음과 유성음 상관속 간의 1차적 및 잉여적 변별자질과 국어에서 평음·유기음의 변별자질을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영어 자음	1차적 변별자질	잉여 자질	대응 국어자음	변별자질
무성자음 [k,t,p,ʃ]	-유성성	+유기성	유기음[ㅋ,ㅌ,ㅍ,ㅈ]	+유기성 -경음성
유성자음 [g,d,b,ʒ]	+유성성	-유기성	무기음[ㄱ,ㄷ,ㅂ,ㅉ]	-유기성 -경음성

영어의 무성자음과 유성자음의 1차적 변별자질은 '유성성'(±voicing)이며 잉여자질로 무성자음에 '유기성'(±aspiration)이 있다. 영어 (및 일본어) 원어민들은 '유기성'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한다. 그와 반면에 국어의 평음과 유기음의 변별자질은 '유기성'이다. 영어에서 변별자질인 '유성성'은 평음이 모음간에 위치할 때 잉여자질로 나타나지만, 국어 원어민들은 그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그 결과, 우리가 [가ㄱ]을 발음하면 국어 원어민들은 선후 음절을 동일하게 감지하는 데, 미국인이나 일본인은 앞의 음절은 무성음 초성, 뒤의 음절은 유성음 초성인 [kaga]로 감지하여 상이한 2개 음절의 연속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가ㄱ]을 국어 원어민들은 상이한 2개 음절의 연결로 감지하는데, 미국인이나 일본인은 동일한, 혹은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으나 구별하기 힘든, 2개 음절로 이해한다. 성씨 '김'(金)을 우리가 [킴]으로 발음하면 영어 원어민은 어두자음 [ㄱ]의 '-유성성'만 감지하여 [kim]과 유사하게 이해하고, 미국인이 [kim]을 발음하면, 우리는 [k-]의 '+유기성'만 감지하여 [킴]으로 이해한다.

국어 원어민은 영어의 1차적 변별자질인 '유성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대신 잉여자질인 '유기성'을 감지하여 영어의 무성-유기음 [k,t,p,ʃ]는 국어의

[ㄱ, ㄷ, ㅍ, ㅊ]에 대응시키고, 유성-무기음 [g, d, b, dʒ]는 [ㄱ, ㄷ, ㅂ, ㅈ]에 대응시킨다. 국어 원어민들에게는 유성성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 수년전 국어학회에서 어느 소장 학자가, 국어 평자음이 모음 간에서 유성화되는 현상에 대한 선행 연구를 비판하며, '유성성'의 정도를 음향음성학적으로 논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국어 원어민들에게는 유성화가 100퍼센트 일어나든 0 퍼센트 일어나든 차이가 없다. 이는 영어 원어민들에게 어두 무성자음 [k, t, p]가 '유기성'을 수반하든 안 하든 상관 없는 것과 같다.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1897년에 學部編輯局에서 번역 출판한 『泰西新史攬要』에 서양어 어두 유성과열음 'g-, d-, b-'의 다수를 한글 경음표기자 'ㄱ-, ㄷ-, ㅂ-'로 표기하였다. 또한, 일제통치시대로부터 사용된 영어 차용어들 중에 [g-, d-, b-]가 [ㄱ-, ㄷ-, ㅂ-]에 대응된 예들이 꽤 있다. 예. [까운] gown, [껌] (chewing) gum, [꺄] girl, [꺄임] game, [꺄인] goal in, [댄스] dance, [달러] dollar, [뺨] bar, [뽀이] boy, [뺨다] butter, [뺨] back.

외국어의 유성음을 국어 경음으로 이해한 듯한 흔적은 訓民正音 창제자들이 '奎濁音'의 표기자로 各字並書 'ㄱ · ㄷ · ㅂ · ㅈ · ㅊ'을 만든 데서부터 볼 수 있다. 칼그렌(Bernard Karlgren)을 위시한¹⁷⁾ 현대 학자들은 전통 중국운학의 '전탁음'을 대개 '유성음'으로 해석하여 왔다. 훈민정음 창제 후에 전탁자는 고유어 표기에 별로 사용되지 않았고, 후세에는 合用並書 'ㄱ, ㄷ, ㅂ, ㄱ, ㄷ, ㅂ' 등과 표기음에 차이가 없는 경음 표기자로 이해하였던 듯하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제정된 맞춤법통일안에서 합용병서를 쓰지 않기로 정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泰西新史攬要』에서 서양어의 유성자음을 국어의 경음자로 표기한 것은 청각감지자의 방언 배경과 관계 있는 듯하다. 중부 및 남부 방언의 언중들보다 북부지방 방언 언중들이 서구어의 유-무성 대립을 분별하는 능력이 강한 듯하다.¹⁸⁾ 이 문제는 보다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위에 보인 [까운]·

17) Karlgren, Bernhard, *Com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Bulletin N:o 26 Stockholm, 1954 참고.

[꺄] 등 경음화 초성 예들의 공통 성격은, 사용빈도가 높은 일반어라는 점과, 차용어의 역사가 오래라는 점이다. 학술용어나 전문기술용어로 '제정된' 영어 차용어 중에는 유성자음을 경음으로 대응시킨 예가 극히 드물다. 또 근래 도입된 영어 차용어들 중에 어두의 유성음을 경음으로 대응시킨 예가 거의 없다. 여기서, [까운]·[꺄] 등은 처음에 북부방언 원어민들이 청각감지한 어형이 '생성'('제정'이 아닌)의 과정을 거쳐 국어에 정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단어들은 중부방언에서 [까운]·[꺄]과 같이 모두 평음 초성으로 대치되었거나, 두 가지 다 통용되고 있다.

영어에서 자음, 대개 [s-에 후행하는 무성파열음 [k,t,p]는, 음향음성학적 조사에 의하여, 유기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운론적으로는 물론, /k,t,p/의 이름이다. 이 같은 환경의 [k,t,p]역시 국어의 중부방언 원어민들은 어두에서와 마찬가지로 [ㅋ,ㅌ,ㅍ]으로 대응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경음 [ㄱ,ㄷ,ㅂ]이 더 근접된 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영어 차용어에서 이 환경의 [k,t,p]를 [ㅋ,ㅌ,ㅍ]으로 대응하든 [ㄱ,ㄷ,ㅂ]으로 대응하든 음운론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된다. 예를 들면, 'ski'는 '스키'로 표기하지만 [스키] 혹은 [스끼]로 발음하고, 'study'는 [스터디] 혹은 [스띠디], 'spy'는 [스파이] 혹은 [스빠이] 둘 다 허용된다.

(5) [dʒ, ʒ, ʒ]-[ㅈ], [tʃ]-[ㅊ], [ʃ]-[ㅅ+], [s]-[ㅅ,ㅆ]의 문제

영어에서 [dʒ:tʃ], [ʒ:f], [z:s] 각 쌍은 조음부위가 동일하지만 '유성성'의 유무로 변별된다.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르게 설명하지만, 첫째 짝은 치조-구개찰음(palato-alveolar affricate), 둘째는 치조-구개마찰음(palato-alveolar fricative), 셋째는 치조마찰음(alveolar fricative)으로 분류한다. IPA에서는 '파찰'과 '마찰'을 구분하지 않고 '마찰'(fricative)만 인정한다. 위에 설명한 우리

18) 1985년에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발행 『외국말적기법』에서는 서양어의 유성자음 표기자 'g,d,b...'를 모두 평음자 'ㄱ,ㄷ,ㅂ...'으로 표기하도록 정하였으나, 무성자음 'k, t, p...'의 표기는 언어마다 다르게 정하였다. 러시아어·프랑스어·에스파냐(스페인)어의 어두 무성파열음은 기본적으로 'ㄱ,ㄷ,ㅂ'으로, 라틴어·독일어·영어는 'ㅋ,ㅌ,ㅍ'로 적도록 하였다. 예. <러시아어>끼르끼즈, 루스끼. <프랑스어>빠스칼, 빠스띠르, 발자끄; <영어>캠프, 타이프, 쿠키, 파스포트.

의 '상하접촉' 관점에서 볼 때, 첫째 짝은 '접촉'이고, 나머지 두 짝은 '불접촉'이다. 그런데, 국어 원어민들은 영어 3 짝의 유성음 3종을 모두 무기·과찰음(+접촉) [ʒ] 하나로 청각감지하고, 무성음 3종은 유기·과찰(+접촉) [ʒ̥]·구개마찰음(-접촉) [s̺+]·구개-치조마찰음(-접촉) [s̺, s̺̺]로 다르게 감지한다.

예. journal[dʒəˈnæl]→{저널}, jump[dʒʌmp]→{점프}, gesture[dʒeˈstʃə]→{제스처}, measure[meˈʒə]→{메저}, vision[viˈʒən]→{비전}, laser[leɪzə]→{레이저}, zenith[ziː(e)ˈniθ]→{제니스(라디오)}, zone[zoun]→{존}, chain[tʃeɪn]→{체인}, chart[tʃɑːt]→{차트}, fashion[fæʃən]→{패션/패션}, shocking[ʃɑː(ɔ)ˈkiŋ]→'쇼킹'샤킹}, sign[sain]→{싸인}, set[set]→{셋/세트}.¹⁹⁾

영어 및 중국어에서는 치조음과 치조-구개음이 구분된다.舌尖(혀끝)이 치조에 접촉하였다가 떨어지며 나는 소리와,舌端이 치조-구개에 접촉하였다가 떨어지거나(중국어) 거의 닿을 정도로 바짝 접근하면서 기류의 강한 마찰을 동반하여(영어) 나는 소리의 구별이다.²⁰⁾ 국어에는 이 두 가지 과찰음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설첨이 상치-치조에 붙었다 떨어지든, 설첨 혹은 설단이 치조-구개에 붙었다 떨어지든 음운론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19) 국어의 과찰음 표기자 'ʒ·ʒ̥'은 훈민정음 창제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이중모음자 'ㅈ·ㅉ·ㅊ·ㅅ'와 결합된 예들이 다른 자음자들에 비하여 월등히 많다. 이것을 'ʒ'과 'ʒ̥'이 본래 치조과찰음을 표기하는 글자이고, 그것으로 구개과찰음을 표기하는 방법이 'ʒ̥, ʒ̥, ʒ̥, ʒ̥'와 결합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는 실제 발음과 상관 없이, 'ʒ'과 'ʒ̥'으로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관습적으로 'ㅈ, ㅉ, ㅊ, ㅅ'를 쓴 듯하다. 예를 들면, 'John'을 관습적으로 '존'으로 표기한다. 최근에 쓰기 시작한 영어 차용어들은 대개 단모음 'ʒ, ʒ̥, ʒ̥, ʒ̥'로만 표기한다. 여기 든 예들 중에서 과거와 같이 이중모음으로 표기한 것을 간혹 볼 수 있는 단어는 '저널', '제스처', '차트', '비전' 등이다.

20) 훈민정음의 서문 언해에 중국어음에 존재하는 齒頭音을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 나는 소리", 正齒音을 "혀끝이 아래 잇몸에 닿아 나는 소리"로 설명하였는데 옳은 설명이다.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것은 현대의 용어로는 '치조음'이고, 혀끝이 아래 잇몸에 닿으면 舌端은 자연히 치조-구개 부분에 닿는다.

이것은 [ㅈ, ㅊ, ㅉ] 뿐만 아니라 [ㄷ, ㅌ, ㄸ]에도 해당된다. 이들이 설단-구개의 접촉으로 발생하든, 설첨-치조의 접촉으로 발생하든 국어 원어민은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ㅅ, ㅆ]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만 설첨 혹은 설단이 치조 혹은 구개에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근접하는 것만 다르다.

이러한 음성학적 특징과 음운체계의 특징을 가진 국어의 원어민이 영어의 유성-치조파찰음 [dʒ]를 [지]에, 무성-치조파찰음 [tʃ]를 [치]에 대응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음상하부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성-구개마찰음 [ʒ]과 유성-치조마찰음 [ʒ]을 파찰음 [지]의 일종으로 감지하는 현상은 특이하다. 이 현상은 위에 설명한 일반 현상 및 국어 음운체계상에서 [시]의 특수한 위치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ㄱ) [치조음] = [치조-구개음]

(ㄴ) [유성음]↔[무기음], [무성음]↔[유기음]

(ㄷ) [무기음]:[유기음] = [기]:[키] = [디]:[티] = [비]:[피] = [지]:[치] = [시]: X

(ㄹ) 국어에서 가능한 마찰음 -- [시](구강전부마찰)·[히](구강후부마찰)

영어의 구개음 [ʒ]와 치조음 [ʒ]를 동일하게 감지하는 현상의 첫째 원인은 (ㄱ) 치조음과 치조-구개음을 구별하지 않는 국어 음운체계상의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영어의 마찰음(조음상하부불접촉음 fricative)을 국어의 파찰음(조음상하부접촉음 affricate)으로 청각감지-대응하는 현상은 우선 (ㄷ) /ㅅ/은 '유기음' 짝이 없기 때문에, 영어의 [s]:[z]를 구별 대응하는데 일반 대응 원칙 (ㄴ)을 적용할 수 없고, (ㄹ) 국어에 가능한 치조-구개 혹은 치조마찰음은 [ㅅ, ㅆ] 밖에 없는데, 강한 치조마찰음인 [s]를 그 것으로 대응시키니, [z]에 대응시킬 마찰음이 없어서 조음 부위가 같은 파찰음 [지]로 대응시키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미완)